

백고좌 같은 종갓집 부도밭에서 시간을 잃다



10 통도사(아), 과거도 미래도 초월한 공간

지난 밤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금강계단을 둘러보는 동안 날이 저물었으므로 통도사 부도밭에는 못 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부도밭을 둘러보는 맛도 색다른 것이므로 일찍 잠을 청하며 조금은 들뜬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산문 앞에서 차를 내려 걸었습니다. 개울물이 이른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처럼 돌돌돌 흐릅니다. 저 물줄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 자신의 온 곳과 가는 곳을 알 수 없듯 한 줄기 개울물의 오고가는 이치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절로 향하는 호젓한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이 곁어온 길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통도사 부도밭에 들어서면 누구나 '종갓집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도밭은 주자장에 서 개울을 건너 새로 세운 일주문 옆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 먼저 공덕비와 탐비 등이 모여져 한 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통도사의 역사를 짐작할만한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도를 한 곳에 모아뒀 옛날을 살다간 고승들의 체취가 깊은 숲을 이루고 있음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모두 60여기의 부도가 3단에 걸쳐 한 단에 20기씩 대와 오를 맞춰 모여져 있습니다. 1993년 부도밭 정비로 완료했는데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낸 월하 스님이 주도한 불사였습니다.

부도밭을 정비해 통도사의 역사와 고승들에 대한 남다른 정성을 보였던 월하 스님의 부도는 부도밭의 중심부에 탐비와 함께 서 있는데 팔각원당형의 전형을 따른 양식입니다. 대리석이 여찌나 곱게 마감돼 있는지 아침 여명 속에서 보니 밑가루 반죽으로 조성한 듯 한 느낌마저 듭니다. '노천당월하선사지비'라는 탐비 옆에 부도가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구하당대종사지비'와 부도가 또 그 옆에는 '총림석덕성해당대종사지비'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경봉 스님의 부도가 있고 이어 '경봉대종사탑비명'이 서 있습니다. 다시 그 옆에는 법인 스님의 부도가 있고 그 탐비인 '법안당법인대종사지비'가 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도들이 모여져 발을 이루는 두 번째 단 초입에 통도사의 오늘을 화려하게 일궈낸 근현대 고승들의 부도와 탐비가 집적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석구 스님 부도



통도사 부도밭 전경.

각종 양식의 부도와 비 정연하게 숲 이뤘

잘 정비된 부도밭 절 역사 그대로 간직... '불지중가'의 새로운 면모

월하 스님이 1993년에 부도원 불사 마무리

단에는 부도와 근접하지 않은 탐비들이 여럿 서 있는데, 초암당 문성대종사, 화엄종주승암당대종사, 화엄 좌주홍경당대사를 비롯해 운하당 성파당 고경당 종해울사 운조당 해각대불보 청하당 등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청하 스님과 해각 불모의 부도는 부도밭 세 번째 단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서 있습니다.

비들이 숲을 이룬 첫 번째 단에서 두 번째 단으로 오르는 문턱은 제법 높지만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의 높이는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밭 전체는 매우 웅장하고 넓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도들 사이를 거닐면서는 생전에 간간하시던 월하 스님의 성품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 바로 배수로와 모든 부도 앞에 표지석을 일정한 규칙으로 박아 둔 때문입니다. 대개의 부도밭은 따로 부도의 주인을 새긴 석물을 두지 않았는데 통도사만큼은 탐비의 글씨가 마법패도 주인을 알 수 있도록 앞에 별도의 표지석을 박아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도 주인의 생애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통도사 역사 길고 찬란한 역사에 비해 관련 고승들의 생애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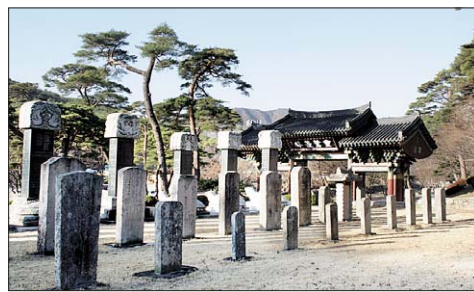
부도밭을 조용히 거닐어 봅니다. 해가 올라오려는지 사방이 환해지고 새들이 요란

하게 우짖습니다. 숲에서 불어온 바람이 부도들을 어루만지고 금강계단이 있는 큰절을 향해 갑니다. 계단에 가서 부처님에게 고승들의 승결을 전할 것 같습니다. 고승 잔디를 밟으며 하나하나 부도들을 만지며 천천히 걷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이 자리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백고좌 법외의 법석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00일 동안 100본의 고승을 모시고 펼쳐지는 사자후의 법석. 그 웅장한 법석은 어지간한 신심이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러나 부도밭을 거니는 동안은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하고 오직 옛 스승들의 고요한 가르침과 계승을 읊조리는 청아한 음성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열연이 사무치고 사무치어 단 한 마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이 뼈에 와 닿는다면 이미 이 자리는 백고좌의 대법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문득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생각납니다. 지난밤 저녁 공양자리에서 마주한 정우 스님은 통도사의 '오늘'을 일구느라 동분서주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부도밭에서 정우 스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라, 서울 강남쪽에 포교당을 세우고 오랜 시간 풀어졌던 백고좌 법외의 전통을 되살려 강남에 불교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정우 스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도밭은 과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산 저 골에 흩어진 부도들을 한 곳에 모아 부도원을 가꾸고 보니 이곳이야말로 통도사의 과거



각종 비석들.

가 현재로 승화된 곳을 짐작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부도밭은 현재이기도 하거니와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셋째 단 뒤로 넓적하게 펼쳐진 빈 공간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스승들이 하나의 부도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영축산문 안에서 정진하는 저 많은 스승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부도밭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닐지 모릅니다. 수행이 집착을 버리는 것이고 집착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승 인연의 흔적을 굳이 한 덩어리 돌로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대의 고명(高名)을 돌에 새기고 유골을 탐에 넣는 것에 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는 철저하게 집착을 털어버린 담백한 수행자의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어느새 부도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솔바람소리가 귀를 적십니다. 문득 셋째 단의 위쪽 그러니까, 아직 부도가 세워지지 않은 빈 공간에 마음이 쏠립니다.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부도들 사이를 다시 걸어도 그 빈 공간에 가 얹어놓습니다. 반가부좌를 틀고 앉으니 나도 하나의 부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불경스러운 행동이란 생각에 얼른 일어섭니다. 멀리서 누가 보면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고 욕할 것 같습니다.

몸은 아직 부도가 들어설지 않은 공간에 서 있지만, 어느 곳이 빈 곳이고 어느 곳이 찬 곳인지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옛 스승들의 부도가 가득하니 찬 곳이고 위쪽은 후대의 스승들이 들어찰 곳이기에도 또한 빈 곳이 아닌 것입니다. 유위법의 부도밭과 무위법의 부도밭은 결국 둘이 아닌 것이어서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통도사 부도밭에서는 다양한 양식의 부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옛부도들은 대개 석종이지만 근현대 고승들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많이 띠었습니다. 전통양식을 벗어난 독특한 형상도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단 뒤쪽 줄에서는 '오르령' 하는 돌사자의 등에 연꽃 받침을 올리고 그 위에 등근 비신을 올린 성암당 스님의 부도가 오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암당(性庵堂) 석구(錫久 1890~1950) 스님은 어떤 분이기에도 이토록 웅장한 기상을 담은 부도를 모신 것일까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암의 첫째 단 우측에서 다섯 번째 위치에 서 있는 비가 바로 석구 스님의 행장을 기록해 둔 '성암당대선사지비'입니다. 월하 스님이 찬한 비문을 천천히 읽어 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스님은 10세에 사서삼경에 능통한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17세에 저수지 공사를 주도했는데 그 저수지가 홍수에 붕괴돼 농가와 전답이 유실되는 것을 보고 허망함을 느껴 유랑하다가 금강산 장안사로 출가했으며 수월 선사와 해월 선사를 참문해 오도승을 올렸다고 전합니다. 월정사와 부석사의 주지를 맡아 가람외호에 조력했고 천성산 내원암선원에서 손수 전담 수만평을 경작하고 광대한 육림원을 조성해 청정 살림의 모범을 보였답니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해에 통도사 갈로당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 직전에 보인 환구가 참으로 장쾌합니다. 비문 그대로 옮겨 봅니다.

'弟子가 懇切히 問道하사 性壽야 저 山水見하라 하시고 怡然入寂하시니...'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조, 이자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단체협의회, 둘째책. <통사열전> 김은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시아문. 등.

남골 묘원 투자자를 찾습니다

국내 최대, 최고의 시설로 전후·후후한 추모공원을 기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 ◇ 초기투자 (금융대출 이전까지)
- ◇ 준공시까지 투자 (시설 완료시까지)
- ◇ 장소 : 수도권 (최고의 명당지, 경기이남)
- ◇ 허가완료 : 기수 3만 3백기
- ◇ 종교와 무관 (불교관, 기독교관, 유교관 등)
- ◇ 협의후 절충가능

기존의 납골당과는 비교할수 없는 가치(명품)로 승부하겠습니다

010-9889-9442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 (不滅鳥)

지금 이 시대는 과거도 지나고 현재도 지나고 미래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고 몸으로 느껴야 믿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불멸조(不滅鳥)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陸海空)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나는 영혼들의 액운(厄運), 액살(絞殺), 잡귀(雜鬼)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幸福)과 건강(健康)과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자녀(子女)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없어지며 사업장에는 사업번창(事業繁昌)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力)과 원력(原力)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不滅鳥)입니다.

불멸조(不滅鳥)는 태양(太陽)속에 사는 삼족오(三足鳥)의 원력(原力)과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 지(地), 인(人)의 원력(原力)이 합쳐져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刀)이 액운(厄運), 액살(絞殺)을 일시로 소멸(消滅)함으로써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氣運)이 있으며 앞길을 뺨뺨 뚫어주고 열어줌으로써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아래에는 순수함의 원력(原力)과 함께 최고의 행운(幸運)을 열어주는 길상(吉祥)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습니다. 순금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서 개금하였으며 순금의 생체활성과정(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기도 축원 불공을 마치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무료 인당 축원발원으로 밝은 앞날을 계획하시고 소원 성취 하십시오. (보시금 7만원)

※ 호신불이 가져오는 현상들

모시고 난 후 어지럽거나 구토증세, 피부이상, 기운저하, 혈압변동 등 여러가지 현상들은 액운과 액살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인내로 믿으시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전화 031)898-5666 / 010-8674-5351
우체국 100941-02-294031 (염홍수)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기 전 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감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입장